

괘불화기에 나타난 불화조성에 관한 시론 (掛佛畫記에 나타난 佛畫造成에 관한 試論)

李 殷 希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목 차

- | | |
|------------------|-------------------|
| I. 머 리 말 | IV. 佛畫造成의 施主 物品 |
| II. 佛畫의 造成 法式 | V. 掛佛畫記에 의한 造成 方法 |
| III. 畫記에서의 佛畫 造成 | VI. 맺 는 말 |

I. 머 리 말

불화의 조성은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며, 절차 또한 복잡하고 엄숙하게 진행된다. 불화는 아니지만 사경에서 그 예를 찾아 본다면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소장(所藏) 《신라(新羅) 백지묵서대방화엄경(白紙墨書大方華嚴經)》 권제(卷制) 43, 10 발문(跋文)에 기록된 법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성기(造成記)에는 조성시주(造成施主), 조성일(造成日), 종이를 제작해서 경전을 만드는 법인 닥나무를 향수를 뿌려서 키우고 정성드려 종이를 만들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하여 사경하는 즉 경 만드는 법과 그림과 그리는 법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형 괘불의 경우는 엄격한 법식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의식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현재 전국 주요 사찰에 소장된 괘불의 수는 90여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60여점에 대한 화기의 기록을 통해 그 조성 방법을 추론하고자 한다.

괘불은 조선 초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이며, 1622년의 죽림사괘불이 현재로써 제일 연대가 올라간다. 조선 초기의 예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太宗) 5년(14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즘 관리들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추천할 때에 잘사는 사람은 극도로 사치하여 허례허식이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세대에 끌리어 남에게 재물을 빌리기도 합니다... 죽은 부모를 위한 천도법회에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공양하지 못하도록 하여 앞에서 내린 명령을 감치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노제를 지내는 것은 상여를 쉬게 하기 위함인데도 망령되어 괘불을 걸어 놓고 그 앞에서 공양하니 이것은 노제를 지내는 본 뜻이 아닙니다...”¹⁾

이렇듯 『조선왕조실록』의 단편적인 기록에서 보듯이 괘불은 사월초파일보다도 죽은 사람을 위한 천도재나 수륙재나 기우재에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많은 경비와 인원이 동원되어 불교의 청정한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금지시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II. 불화(佛畵)의 조성(造成) 방법(方法)

1. 절 차

불화의 조성 법식은 대중을 교화하기 위하여 또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법식이 따르게 된다. 화기(畵記)에는 ‘증명비구(證明比丘)’, ‘송주비구(誦呪比丘)’ 등의 기록이 보이는데, 증명비구는 그림이 경전이난 교리에 합당한지 법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스님이고, 송주비구는 다라니를 독송하는 스님이다.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에 따르면 그림을 그릴 때 독송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 그림을 조성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미타불상을 만들 때에는 그 만드는 법(작상법(作像法))은 향수를 뿌린 진흙으로 단을 설치하고 몇 사람의 그림 잘 그리는 화사(畵師)를 불러서 매일 목욕시키고, 또한 화사와 더불어 팔계제(八戒祭)를 받게 하며, 주사(呪師)도 역시 매일 목욕을 하고 인(印)을 지어 몸을 보호한다. 화사도 또한 인을 지어 몸을 보호한다. 주사와 화사 두사람 모두 함께 계를 범하여 재를 깨뜨리면 다섯 가지 신(산(酸)) 것과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단을 모아 한 가운데 휘장을 치고, 사방에 음식과 과자들을 놓고 여러가지 음악을 아미타불에게 공양한다. 화사는 회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여러가지의 채색을 쓰고, 훈육이나 안신 같은 향료를 써서 이를 조화시키며, 피교(皮膠)는 쓰지 않는다. 주사는 단 밖으로 서향(西向)해서 앉고, 화사는 단 밖으로 동향(東向)해 앉아서, 주사는 앞에서 향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향을 피우고, 또한 여러 가지 꽃을 뿌리며, 밤이 되면 등에 불을 붙인다. 주사는 아미타불의 신인을 짓는데, 다라니주문을 염송해서 말하기를 “나모아리야 아미타파야 단타게다야, 아리아저 삼박삼보리아다지타 암아밀리 마나아나 살파파파니 타아타아 살파파파니오호 포사하”한다.

그 다음에 화사는 불상을 그리는 법을 써서 중앙에 아미타불이 결부좌하여 손으로 아미타불 설법인을 짓는데, 좌우의 대지(大指)와 무명지의 손가락 끝을 서로 대어 오른쪽 대지와 무명지 끝으로 왼쪽 대지와 무명지 끝을 누르고 왼쪽 오른쪽의 두지(頭指)와 중지(中指), 소지(小指)는 밖으로 세운 것을 그린다. 부처님의 오른쪽에 11면 관세음보살상을 만든다. 부처님의 위에는 보배전각을 만드는데, 모두 칠보를 이루며, 전각 아래에는 칠보 휘장을 만드는데, 모두 칠보 영락을 만든다.²⁾

즉 그림을 그리는 화사는 매일 목욕하고, 주사(呪師)가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가운데 화사가 법식대로 불화를 그리는 것이다.

1) 『朝鮮王朝實錄』太宗恭定大王實錄 제10권 太宗 5년(1405) 8월 22일(乙酉)

禮曹請定喪祭之禮…非佛氏清淨之道也自今父母追薦之制有制有服之親外不詳詔寺佛排衣前降判旨毋敢違達越路祭之設所以갈神子也妄設佛排祭神之意自今只說白餅菓床以尊其神違者憲府考察下議政府擬議議政府議禮曹所申…

2) 文明大, 「제3장 불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나」(『韓國의 佛畵』, 열화당, 1977. 119~124쪽)에서 인용

2. 그리는 시기와 장소

그림을 그리는 장소를 택하고 항상 깨끗한 옷으로 입고 철저한 계율을 지켰다고 하는데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 권(卷)1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달(신통월(神通月))에 그림으로 꾸미고 장엄한다. 소위, 정월, 5월, 9월이다. 즉 이러한 달의 초하루, 보름에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을 그리는 곳은 불당전(佛堂殿)이나 산간의 선인굴(仙人窟)이다. 이러한 곳은 사방 백 걸음(백보(百步))안쪽으로는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물을 없애고 벌레도 없애어 청결하고 정미(淨美)하게 한다. 그림을 그리는 바닥은 매일 범대로 향수를 뿌린다. 그림 그리는 이(화장인(畫匠人))는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하고 그림 그릴 때에는 팔계재(八戒齋)를 하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한번씩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 입으며, 모든 말(담론(談論))을 중단한다.³⁾

[괘불화기표]에 의하면 괘불을 조성한 시기는 3월에는 4개 사찰, 4월에는 9개 사찰, 5월에는 12개 사찰, 6월에는 9개 사찰, 7월에는 2개, 9월과 10월에 5개 사찰 등을 살필 수 있다. 대부분 사찰에서는 3월에서 9월 사이에 일년 중 제일 날씨가 화창한 날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 괘불(1673년)은 맹하(孟夏) 즉 초여름에, 다보사 괘불(1945년)은 맹추(孟秋) 초가을에, 봉은사 괘불(1886년) 유하(留夏) 즉 석류가 나오는 5월에, 불암사괘불(1895년) 지월(至月)인 동짓달에 조성된 다양한 계절표현을 볼 수 있다.

괘불을 조성한 장소는 배접을 할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인데 그러한 장소는 사찰별로 그리 많지 않는 것 같다. 예를들면 하동 쌍계사 누각, 양산 통도사의 만세루는 소장된 괘불을 펼칠 수 있는 알맞는 공간이라고 한다.⁴⁾ 또한 칠장사나 영은사 등의 사찰의 경우에도 심검당이나 요사채 등 큰방과 괘불이 알맞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괘불의 크기는 제작하는 장소에 따라 제한되는 것 같다.

3. 그리는 법식

그림을 그리는 바탕인 베를 짜는데 엄격한 법식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괘불 화기에 의하면 바탕시주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絹索神變眞言經)》 권(卷)8에 의하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동녀(童女)로 하여금 깨끗한 곳에서 첩견(氈絹) 등을 짜게 하는데, 베로 입을 가리고 세 번씩 목욕하고 몸에는 흰 옷을 입는다. 베짜는 사람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 역시 반드시 청정하게 해야 한다. 모든 덜 된 사람이나 나쁜 무리들은 보아서는 안된다. 베 짜는 곳에는 때때로 꽃을 뿌리고 대집회경을 읽게 된다.⁵⁾

이러한 의식은 호암미술관 소장 《신라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발문에서도 자세히 적혀 있다.⁶⁾ 사경을 만드는 작법은

첫째 단계로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다. 종이는 먼저 닥나무를 키우는데 닥의 뿌리에 향수를 뿌리고 키우는데, 향수를 흡수하면서 커지게 된다. 이 닥나무가 다 자라면 닥 껍질을 벗겨 내어 이것을 연마해서 종이를 만든다.

3) 文明大, 앞글에서 인용

4) 윤열수, 「제작장소와 제작과정」(『괘불』대원사, 1990, 29~33쪽 참조)

5) 文明大, 앞글에서 인용

6)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14, 一志社, 1979. 27~64쪽 참조

둘째 단계는 경을 만들기 전의 준비 단계이다. 글씨를 쓰는 필사나 경심장이나 화사들은 먼저 보살계를 받고 재식도 해야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대소변을 보거나 잠자고 음식을 먹고나면 반드시 향수로 목욕을 해야한다. 경 만드는 곳에 나아가 경을 필사할 때 깨끗하게 하고, 아울러 신정의(新淨衣) 등으로 장엄하며 두 청의동자가 관정(觀頂)을 하고 청의동자와 네사람의 기악인이 함께 기악을 연주하고 또한 한사람은 향수를 가는 길에 뿌리고 또 한사람은 꽃으로 가는 길에 뿌린다. 또한 법사는 향로를 받들어 인도하고 다른 법사는 범패를 부르면서 인도하며 모든 필사들은 각기 향과 꽃을 받들어 염불하면서 경 만드는 곳에 나아간다. 필사에게도 보살계를 받게 하는 것으로 보아 속인도 있었다고 짐작한다.

셋째 단계는 경을 만드는 장소에서 직접 경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모든 관계자는 경 만드는 장소에 이르면 의식부터 행한다. 즉 귀의불·법·승을 부르고, 세번 큰 예배를 하고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화엄경에 공양한다. 그 다음에 먼저 경을 쓰고 다 쓴 다음에 교정을 보는 단계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빠져있다.

이렇듯 8세기의 신라에서의 불교경전 의식에 대한 발문의 기록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식을 통해서 패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III. 화기(畫記)에서의 불화조성(佛畫造成)

각 사찰에서 큰 불사 등의 특별 법회를 개최할 때는 방(榜) 즉 각 분야의 책임에 해당하는 소임을 정하게 된다. 이 방(榜)은 중국의 선종 성립 이후 전통적인 제도로써 일반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사회행정적인 종교 활동의 발전에 모체가 되었다. 부처님의 재세시에는 교단의 지도적 역할에 제자들이 개성에 따라 전담 분야를 위촉되었는데 그 예가 십대제자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백장(白丈)스님이 총림(叢林)을 개설할 때 총림의 운영과 모이는 대중들의 통솔을 위해 각각의 직무 즉 방목(榜目)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장로자각종(長蘆慈覺宗) 선사(禪師)의 구경문(龜鏡文)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총림고 선원 및 강원 또는 각 사찰 등에서 결제시와 기타 불사가 있을 때 이러한 방(榜)을 마련하는데 통상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한다.⁷⁾

패불 화기에 의하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패불 조성에 시주한 집단인 시주질(施主秩), 패불조성에 재물과 인력을 끌어드린 화주질(化主秩), 그림 조서에 참여한 연화질(緣化秩)이다.

1. 시주질(施主秩)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탕시주·포시주·채색시주 등을 시주한 속인들의 집단인데, 혹은 통정대부나 가선대부 등의 벼슬을 부여받은 승려들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 화주질(化主秩)

7) 金鎭煥, 「龍象榜에 관한 小考— 宗教行政의 側面에서」 『東國思想』. V. 17,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4.

그림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다.

상중대덕질(上中大德秩)·정인소(淨人所)·본사질(本寺秩)·삼강질(三綱秩) 등으로 열거되는데 대부분 덕망있는 노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 장로(長老) :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범납이 많은 비구
- 수좌(首座) : 禪家(선가)의 僧堂(승당)에 우두머리
- 감원(監院) : 한 사원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소임
우리 나라에서는 한절의 살림을 맡아보는 것을 말함. 감사(監寺) ‘사주(寺主)’라고도 한다.
- 유방(維邦)·입승(立繩) : 절의 사물을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책임자임
- 화주(化主) : 사찰의 주지 또는 절에서 쓰는 비용을 구하는 일을 담당
- 삼강(三綱) : 사원의 대중을 거느리고 사무를 맡은 3인의 승려
상좌(上座)·사주(寺主)·도유나(都維那)
사주(寺主)·지사(持寺)·유나(維那)
- 수승(首僧) : 승려 가운데 가장 높은 이
- 공사(供司)(공양주(供養主)·공두(供頭)·반두(飯頭)) : 대중이 먹을 밥을 맡아 지음

3. 연화추(緣化秋)

불법을 들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교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화사나 증명(證師)의 이름이 나열된다. 선암사괘불(1975년)의 화기 [도판 3]에서 보면 먼저 증사(證師)·지전(持殿)·송주(誦呪)·금어(金魚)·화사(畫師)·공양주(供養主)·공궤인(供饋人)·정통(淨桶)·대도감(大都監)·별좌(別坐)·대화토(大化土)의 순으로 나열된다. 그밖에 종두(鐘頭)·다각(茶角)·부목(負木) 등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집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직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증명(證明)·증사(證師) : 그림이 경이나 교리에 합당한지, 또는 법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스님
- 지전(持殿)·지전(知殿)·전주(殿主)·전사(殿寺) : 전사(禪師)에서 불전에 대한 청결, 향·등 등의 일체를 맡은 스님
- 송주(誦呪) : 그림을 그릴 때 다라니경을 독송하는 스님
- 공양주(供養主) : 대중이 먹을 밥을 지음
- 정통(淨桶) : 대중의 세숫물을 맡아보는 일
- 도감(都監) : 절의 사물을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스님
- 별좌(別座)·전좌(典座) : 선원에서는 대중의 좌구·침구·음식을 마련하는 소임
- 부목(負木) : 땀감을 마련하는 소임
- 종두(鐘頭) : 법식이 있을 때 타종하는 스님
- 다각(茶角) : 대중이 마실 차를 준비

용상방(龍象榜)에 의해 괘불의 조성은

첫째, 증명(證明)·방장(方丈)·조실(祖室)·수좌(首座)·노덕(老德)·유나(維那)·율주(律主)는 불계를 엄수하고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승려의 집단이다.

둘째, 강주(講主)·설중(說衆)·청중(聽衆)·승법(乘法)·법주(法主)·입승(立繩)·찰

중(察衆)·화주(化主)·원주(院主)·별좌(別座)·공사(供司)·채공(菜供)·갱주(羹主)·부두(負頭)·시자(侍子)·정인(淨人)·다각(茶角)·종두(鐘頭)·법고(法鼓)·욕주(浴主)·수두(水頭) 등은 각 사찰의 운영방침의 방명(榜名)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방목(榜目)은 상하가 없고 중앙에서 좌우 또는 좌우에서 중앙으로 유지하고 있어 수행과 종교의 이원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괘불의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에 참여한 승려 집단과 대중 집단이 서로 이원화되어 상하 구별없이 기록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4. 화 사(畫 師)

그림을 그리는 스님인 승려화가는 화사라고 한다. 조선조에 많이 쓰던 이름은 도화승(圖畫僧)·화사(畫士)·화승(畫僧)·금어(金魚)·양공(良工)·편수(片手)·선화(善畫)·용안(龍眼) 등이다. 괘불에서 17세기에는 화원(畫員)이 주로 사용되고, 17세기 이후에는 금어(金魚)·편수(片手) 등의 사용이 보이는데 대체로 서열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금어(金魚)라는 명칭은 ‘극락의 못에 금어가 없는 것을 부처님이 보시고 불(佛)의 자형 현세에 묘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듯이 내세에는 극락의 금어로 환생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조선조의 불화 사승을 모두 금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⁸⁾

화사의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지만, 특히 의견은 조선 후기 숙종조부터 영조조(1710년경~1760년경)까지 지리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활약한 불화를 그린 화사승이다. 그는 전남 조계산을 중심으로 송광사, 지리산의 설상사와 천은사, 경남 운흥사와 청곡사 등의 사찰에 영산회상도·팔상도·나한도·감로왕도·괘불 등 불화 주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가 그린 초본은 여러 사찰에서 제작되어 유사형식을 이루고 있다. 괘불 5점 중 청곡사괘불(靑谷寺掛佛)(1724년), 운흥사(雲興寺) 괘불(掛佛)(1730년), 다보사(多寶寺) 괘불(掛佛)(1745년), 개암사(開巖寺) 괘불(掛佛)(1749년), 안국사(安國寺) 괘불(掛佛)(1741년)의 5점과 개암사에 보관되어 온 초본(草本)(현재 통도사에 보관)을 사용한 것이다. 또 운흥사 팔상도(1719년)는 그의 제자들이 제작한 송광사 팔상도(1728년)와 쌍계사 팔상도(1728년)에서 보면 화면구성 등이 일치된 점으로 보아 그의 화풍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불화는 약50년에 걸쳐 25여점인데,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1710년에서 1729년까지로 가름하고 단아한 얼굴에 어깨에 적당히 살이 붙은 몸집, 화려한 채색에 중간색의 적절한 조화를 보이고 있다. 1970년후반에 들어서면서 붓의 놀림이 신선과 같다는 호선(毫仙)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완숙한 경지에 들기 시작하며, 1730년에서 1740년초인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존숙(尊宿)이라는 칭호를 받은 절정기에 달한 시기이다. 뚜렷한 이목구비(耳目口鼻)에 은화한 표정이 잘 표현된 단아한 얼굴과 생동감이 있는 필선 유연한 의문 등을 볼 수 있다. 1740년말에서 1790년의 노숙기로 앞 시기에 사용된 양녹색이 사라지고 밝은 녹색과 홍색의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의견의 화풍은 안정된 구도에 불화의 주제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주고 이에

8) 무형중요문화재 제48 금어편(이만봉스님이야기)

불·보살들의 표정은 단아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연하게 흘러 내리는 의문에 다양한 문양을 삽입하는데 번잡스럽지 않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색채는 밝은 진홍과 양녹색의 강한 보색대비를 이루는데 황토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필선은 일정한 굵기에 부드러운 선묘로 강한 채색과 다양한 문양 등을 산만하지 않게 정돈시키고 있다.

<표 1> 의겸조성불화

寺 刹 名	佛 畫 名	年 代	畫 師 名	備 考	
慶南	雲興寺 靈山殿	靈山會上圖	康熙 58년(1719)	片手 畫員	
	雲興寺 靈山殿	八相圖	康熙 58년(1719)		
全南	驪川 興國寺	靈山會上圖	康熙 60년(1723)	畫員	2·4·6尊者제의
	驪川 興國寺	羅漢圖	康熙 60년(1723)		
	驪川 興國寺	觀世音菩薩圖	康熙 60년(1723)		
慶南	靑谷寺	掛佛	康熙 61년(1724)	畫員	
全南	松廣寺 應眞殿	釋迦五尊圖	雍正 2년(1724)	金魚	
	松廣寺 靈山殿	靈山會上圖	雍正 3년(1725)	金魚	
全北	實相寺	地藏菩薩圖	雍正 4년(1726)	畫員	
	安國寺	掛佛	雍正 6년(1728)推定 乾隆 57년(1729)重修	畫員	
慶南	海印寺	靈山會上圖	雍正 7년(1729)	毫仙	
慶南	雲興寺 大雄殿	三世佛畫	雍正 8년(1730)	畫員	
	雲興寺 大雄殿	甘露圖	雍正 8년(1730)	畫員	
	雲興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雍正 8년(1730)	畫員	
	雲興寺 大雄殿	觀音菩薩圖	雍正 8년(1730)	金魚	
	雲興寺	掛佛	雍正 8년(1730)	金魚	
忠南	甲寺 大雄殿	三世佛畫	雍正 8년(1730)	畫員	義 '兼'
全南	仙巖寺	甘露圖	乾隆 元年(1736)		
全南	多寶寺	掛佛	乾隆 10년(1745)	金魚	尊宿 義 '兼'
全北	開巖寺	掛佛	乾隆 14년(1749)	金魚	
全南	泉隱寺 七星閣	七星佛畫	乾隆 14년(1749)	金魚	
全北	實相寺 金堂	極樂會圖	乾隆 14년(1749)	畫師	
	實相寺	神衆圖	乾隆 17년(1752)	金魚	
全南	華嚴寺		乾隆 23년(1757)		

<표 1> 의겸조성불화

의겸은 1730년전후에 전국에 걸쳐서 활약했지만 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찰에 그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경남 고성 운흥사(雲興寺)에 머물면서 그의 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초본이 여러 사찰의 불화 조성에 사용한 점도 중요하다. 조선조의 황금기인 숙종·영조 때 활약한 화사로 선암사·송광사·여천 홍국사에 그의 문하생인 환척(巨陟)·비현(丕賢)·쾌윤(快允)·사신(思信) 등의 화사들이 그의 화풍을 이어가고 있다.⁹⁾

또한 승려들은 국가적인 사업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수원 화성 축조 공사에 46명의 화원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 40여명이 스님이다. 이렇듯 국가기관에서도 참여시키고 사찰의 모든 불화 탕화 단청까지 참여하였고, 하나의 조직적인 계통을 이루면서 주로 그림에만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IV. 불화(佛畵)의 조성(造成) 시주물품(施主物品)

괘불에서의 주요 품목은 바탕시주일 것이다. 물론 불화나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 바탕시주

바탕시주는 여러 명칭이 보이는데 파탕(波湯)(波蕩) 또는 기포(基布)·포(布)·면(面)의 바탕질이 있고, 후배지(後排紙) 시주도 중요시 여긴 것 같다. 용봉사 괘불(1688년)에서는 권선지(勸善紙)라고 기록되어 있고, 북장사 괘불(1668년)에서는 파탕질(波湯秩)을 독립시키고 있어 바탕시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채색시주

바탕시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채색시주이다. 조선조 불화에서는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청색과 황토색의 중간색의 사용과 금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의 사용이고 다음이 주홍시주이다. 금은 황금(黃金)·면금(面金)·금(金)으로, 적색 계통은 주홍(朱紅)·연지(燕脂), 녹색은 하엽(荷葉)·당하엽(當荷葉)·삼록(三綠), 청색은 중청(重靑)·이청(二靑)·대청(大靑)·청화(靑花)로 백색은 진분(眞粉)·정분(丁粉) 등으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간 색조로 황색은 황단(黃丹)·석자황(石紫黃)·수토황(水土黃), 흑색은 진묵(眞墨)이 있고, 그밖에 진주(眞珠), 오색(五色)의 명칭도 보인다. 북장사 괘불(1668년)의 경우는 채색 시주질을 독립시키고 있다.

색채를 바탕으로 착색되는 아교는 아교(阿膠)나 어교(魚膠)가 보이는데, 어교는 민어에서 추출한 것으로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3. 의식공양물(儀式供養物)

신앙 승배의 대상인 괘불이 완성이 되면 점안(點眼) 의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 의식에 쓰여지는 향대(香臺)·향촉(香燭)·인등(引燈)과 거울, 가마 등으로 구분된다. 불화조성의 의식 절차에 따라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괘불의 상단이나 뒤편에 걸리는 복장은 腹藏·腹莊으로 기록되고 있고 영락은 瓔珞·瓔絡·낙영(落瓔)으로 또 향을 보관하는 주머니인 향낭(香囊)을, 등은 인등(引燈)·등촉(燈燭), 향대(香臺)로 염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후령(喉鈴)도 있다. 특히 원경(圓鏡), 관환(貫環)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원경은 괘불 상단에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불화에서

9) 李殷希,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24, 문화재관리국, 1991.

는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화와 완주 위봉사 보광전 불화에 현재 남아 있지만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 또한 가마인 패불 이운식에 쓰였던 보련(步蓮)도 보인다.

4. 공양물

공양물은 불화를 조성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먹는데 피료한 물품을 시주한 것을 말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소금과 장으로 식염(食鹽), 말장(末醬)이 있고, 꿀은 청밀(淸蜜)로 기록되어 지고 있다. 특히 도림사 패불(1683년)에서는 쌀인 제미(齊米)와 여숙(茹菽)(채소와 콩)이 보이고 있다. 죽림사 패불(1622년)에는 찬물(饑物)이라고 명칭은 반찬 거리를 시주한 것으로 보인다.

5. 기 타

바탕과 채색, 그리고 공양물 이외의 칠물과 께를 시주한 경우도 보인다.

패불을 보관하는 함인 궤건(櫃簾)을 시주하는 경우에는 패불함의 바깥쪽이나 뚜껑 안쪽에 기록한다. 대부분 패불의 조성과 같은 시대이지만, 몇 년후에 제작되는 경우도 보인다.

패불조성에 있어서 소요되는 물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탕시주이고, 채색시주로는 황금과 주홍시주이다. 패불조성에 소요되는 공양물 중 쌀·소금·장·꿀이 보이고, 의식으로는 원경·등축·보련 등이 보인다. 도림사 패불(1683년작 삼존불)의 경우는 주불·좌보처·우보처를 각기 시주한 특이한 경우도 있다. 계림사 패불(1809년)의 경우는 경북 상주 읍향청들이 나서서 패불을 조성한 예도 있다.

V. 패불화기에 의한 조성방법

1. 조성법

패불을 그리는 방법은 우선 첫째로 바탕을 준비한다. 주로 바탕은 마본 또는 저본, 드물게 견본도 있다. 삼베를 판판하게 마름하고 아교나 부레풀로 덧칠한다. 이 단계는 가칠장 또는 개칠장이라고 한다.

둘째, 가칠이 끝난 뒤에 먹선으로 그리는데 주로 우두머리 화승이 직접 그린다. 초칠이라고 한다음에 채색을 한다.

세째, 그림이 완성되면 들기름이나 오동기름을 바르는데, 방수나 방습 또는 방충에도 효과를 준다.¹⁰⁾

2. 시주자

첫째, 시주질은 시주질·시주목록·시주열목·본사질·공양시주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10) 文明大 앞글에서 인용

둘째, 연화질에는 화원과 증명비구, 송주비구, 별좌 등이 있는데, 개암사 괘불(1749년) 작에는 송주질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 대부분 괘불에서는 ‘대화사’는 덕망있는 스님이 기록되지만, 선암사 괘불(1753년)의 경우는 ‘대화사(大化士) 비현(丕賢)’라는 인물은 18세기에 활약한 화사라는 점이 중요시된다. 칠장사 괘불(1710년)에는 ‘증명명현대덕(證明名現大德)’이라는 명칭도 흥미롭다.

셋째, 시주질은 보통 속인이 보이고 혹은 벼슬은 받은 가선대부·통정대부가 있는데 여천 흥국사 괘불이 경우는 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내소사 괘불(1700년)에는 ‘화원가선대부(畫員嘉善大夫)’라는 기록도 보여 화원도 벼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승려화가는 주로 금어로 기록되어 있고, 드물게 도화원(都畵員)도 보인다.

다섯째, 칠장사 괘불(1710년)에는 비구 탄명(坦明)이 어머니를 위해 조성하였고, 선암사 괘불에서는 많은 부모와 스승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사실이 주목된다.

VI. 결 론

괘불의 화기에 보이는 몇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괘불의 경우에 따라 시주한 인물의 집단은 다르고, 의식절차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의식의 절차와 소요 물품은 대체로 같다고 본다.

둘째, 각 사찰에 소장된 괘불을 통한 용상방에서 거의 비슷한 전통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승려화가들의 집단은 조직적인 집단이 보인다. 특히 1750년경에 활약한 의겸의 경우는 ‘운흥사 괘불(1730년)’, ‘다보사 괘불(1745년)’, ‘개암사 괘불(1749년)’, ‘안국사 괘불(1741년)’, ‘청곡사 괘불(1772년)’ 등의 괘불은 개암사에 남아 있는 초본을 이용하여 조금씩의 변형을 두어 제작하였다.

넷째, 괘불 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증명비구가 중요하나, 증명비구가 화사들의 우두머리이기보다는 불계를 염수하고 그 분야에 제일 정통한 승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다섯번째, 괘불의 화기에 의하면 공양시주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금당사 괘불(1792년) 이전의 화기에서만 그 내용이 기록된 점을 볼 수 있다.

표 2. [掛佛畫記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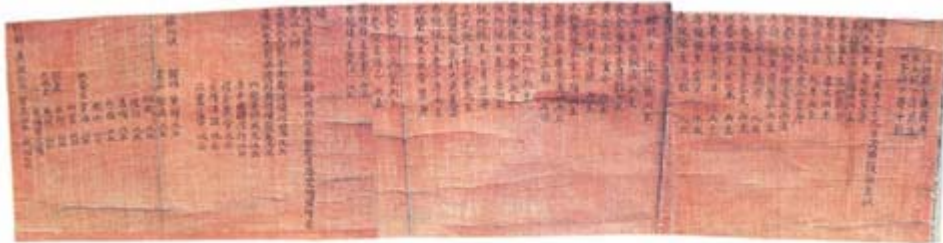
번호	掛佛名	造成年代		크기	材料	畫記欄	畫師
		年代	月日				
1	竹林寺 掛佛 (掛佛世尊幀)	1622년 光海君14년 天啓 2	11월17일	5.14 × 2.75	絹本		證明: 愼受 畫士: 首印·信軒
2	無量寺 掛佛 彌勒佛掛佛幀	1627년 仁祖 5년 天啓 7년	6월	12.00 × 6.93	苧本	施主秩 畫員秩	畫員: 法尙·慧 允·仁學·熙尙
3	七長寺 掛佛 五佛會掛佛幀	1628년 仁祖 6년 崇禎 元年	3월초1일 ~4월일	6.56 × 4.04	絹本		證明持殿謙: 畫 寬比丘 畫員: 法燭
4	菩薩寺 掛佛 靈山會掛佛幀	1649년 仁祖 27년 崇禎 23년	10월 초	6.13 × 4.26	麻本	施主目錄 畫員所	證明: 慧海 畫員: 信謙·智 辨·唯悅·德熙 ·敬允
5	甲寺 掛佛 三身佛掛佛幀	1650년 孝宗元年 順治 7년	6월	12.47 × 9.48	麻本	山中大德秩 淨人所 畫員秩 緣化所	證明: 信換 畫員: 敬岑·華 雲·應悅·海明 ·學能·道元 末寺: 應天·信呪
6	安心寺 掛佛 靈山會掛佛幀	1652년 孝宗 3년 順治 9년	4월	7.26 × 4.72	苧本	施主列目 □□具秩 緣化秩	證明: 琢麟 畫員: 信謙·德 熙·智彦·眞性 ·信律·三印· 明戒·惠月
7	華嚴寺 掛佛 靈山會掛佛幀	1653 孝宗 4년 順治 10년	5월 29일	12.00 × 7.69	麻本	施主秩 緣化秩	證明: 雙輝 畫員: 智英·坦 戒·道祐·思順 ·行哲·懶洽
8	靈水庵 掛佛	1653년 孝宗 4년 順治 10년		8.56 × 5.50	麻本	畫員	畫員: 明玉·少 拱·玄旭·法能

표 2. [괘불화기표(掛佛畫記表)]



도판 1. 죽림사 괘불(1622년) 화기

도판 1. 죽림사 괘불(1622년) 화기



도판 2. 화엄사 괘불(1653년) 화기

도판 2. 화엄사 괘불(1653년) 화기



도판 3. 선암사 괘불(1753년) 화기(상)



도판 3. 선암사 괘불(1753년) 화기(중)



도판 3. 선암사 괘불(1753년) 화기(하)